



**이대훈 농협은행장, 스승의 날 깜짝 게릴라 데이트**  
NH농협은행은 15일 이대훈 은행장이 경기도 파주 마정초등학교를 찾아 '깜짝 게릴라 데이트'를 가졌다고 밝혔다. 스승의 날을 맞아 선생님들께 감사패와 카네이션 등을 전달하고, 학교에는 공기청정기를 기증했다. 이대훈 NH농협은행장(오른쪽에서 네번째)과 각급종 교장(오른쪽에서 일곱번째)이 15일 게릴라 데이트 행사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NH농협은행



**김도진 IBK기업은행장 '플라스틱 프리 챌린지' 동참**  
김도진 IBK기업은행장이 릴레이 환경 캠페인인 '플라스틱 프리 챌린지'에 동참했다. 플라스틱 프리 챌린지는 일회용 컵 등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사진을 찍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재하고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방식의 릴레이 환경 캠페인이다. 김도진 IBK기업은행장(가운데)이 직원들과 텀블러, 머그컵을 들고 '플라스틱 프리 챌린지' 동참을 위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IBK기업은행



**신라면세점, 업계 글로벌 어워드 2관왕 쾌거**  
신라면세점은 지난 14일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샌즈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2019 DFNI 아시아 어워드(DFNI Asia Awards)'에서 '올해의 아시아태평양 면세점'과 '올해의 신규 매장'에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김진혁(중앙) 신라면세점 해외운영총괄 사업부장과 관계자들이 수상 후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DFNI

**GS리테일 청소년 직업체험 'GS꿈채우미' 시작**

GS리테일은 교육부 지원 기관인 사단법인 한국자원봉사문화 및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해 취업을 희망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직업체험 교육 'GS꿈채우미'를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GS리테일의 직업체험 교육 'GS꿈채우미'는 이날부터 오는 2020년 5월까지 1년간 '자유학기제'를 신청한 중·고등학생 총 12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자유학기제'는 중·고등학교 과정 중 한 학기 또는 두 학기 동안 지식과 경쟁 중심에서 벗어나 학생 참여형 수업을



실시하며,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활동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제도다. GS리테일은 매주 1회 총 4시간 동안 2~3명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GS수퍼마켓(GS THE FRESH)과 장보기쇼핑몰GS프레시 디지털센터에서 기본 서비스 이론 및 현장교육을 동시에 진행한다. /김민서 기자 min0812@

**한국필립모리스 과학 총괄 임원에 김대영 박사 영입**

한국필립모리스가 관련된 전자담배 아이코스와 전용담배 히츠의 근간을 이루는 '과학 커뮤니케이션' 강화에 나선다. 한국필립모리스는 과학 총괄 임원(상무)으로 서울 의대 출신의 혈액종양내과 전문의 김대영 박사(사진)를 영입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과학 총괄 상무는 서울대학교 의



대를 거쳐 동 대학원에서 내과학석사를, 울산대학교 대학원에서 내과학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서울대병원 레지던트를 거쳐 서울아산병원 혈액내과 부교수,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부교수로 재직하다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 위치한 셰이크 칼리파 전문 병원(서울대병원 운영)에서 최고 의학 부책임자로 근무한 바 있다. /박인용 기자

**결국은 또 세금이다**



**윤 위 중의  
잠시 심포**

얼마전 카센터를 하는 사촌형이 불평을 털어냈다. 서울시가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 보조금을 확대해서 손님이 끊겼다는 것이다. 마포구 망원동에서 카센터를 혼자 운영하는 사촌형은 '망리단길'이 부상하면서 건물주가 가게세를 올리자 인근 한적한 동네로 쫓겨난 이른바 '젠트리 피케이션'의 피해자다. 가게를 이전하면서 동네 주민들의 발길은 끊겼고, 그나마 인천공항을 오가는 콜벤들이 수시로 차량 정비를 맡겨 근근이 먹고 살았다. 그런데 서울시가 노후경유차에 대한 폐차보조금을 올리면서 이 콜벤들이 전부 폐차돼 그나마 있던 손님들까지 끊겼다는 것이다. 사촌형은 "내가 낸 세금으로 노후경유차 보조금을 올린 것 아니냐"며 "내 세금이 내 생계를 가로막는데 쓰였다고 생각하니 분통이 터진다"고 했다. 실제로, 서울시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을 상향조정했다. 차량에

따라 다르지만, 3.5t 미만 차량들은 150만원에서 165만원으로 상향됐고 3.5t 이상 차량 중 6000cc 이하는 400만원에서 440만원으로, 6000cc 이상은 700만원에서 770만원으로 상향됐다. 노후경유차들의 폐차를 독려하기 위해 보조금을 올린 것이다. 울며미세먼지가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는 얘기가 부쩍 많아져 콜벤들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폐차를 시킨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그 예산은 고스란히 서울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이다. 시민들이 뽑은 대표가 시민들의 세금을 이래저래 쓰겠다는 걸 반대하는 건 아니다. 시민들을 대표하는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모든 시민들에게 걷은 세금을 특정인에게 노후경유차를 새차로 교체 수 있도록 나눠준다는 건 불만의 소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또 다른 사례도 있다. 15일로 예정됐던 버스 노조의 총파업도 결국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막았다. 정부는 버스 총파업 대란을 막기 위해 '준공영제'란 카드를 꺼내 버스 노조의 불만을 잠재웠다. 여기에 더해 국토교통부와 경기도는 버스 요금도 올리기로 했다. 1250원에서 1450원(일반 시내버스)으로,

2400원에서 2800원(광역버스)으로 각각 인상하기로 한 것이다. 준공영제든, 요금인상이든 결국 시민들이 주머니를 털어가겠다는 것이다. 기승전결의 결론은 결국 세금인 셈이다. 버스가 시민들의 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성이 있고, 그런 차원에서 준공영제를 실시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지하철처럼 총파업이라도 하면 시민들의 발이 묶이고, 국가경제든 가게든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처럼 특정 업종의 주52시간 정착을 위해 모든 국민의 세금이 쓰인다는 점에는 반대다. 이런 정책은 누구나 조금의 고민도 없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돈이 부족하면 세금으로 때우겠다는 것만큼 쉬운 방법이 어디 있겠나. 국회는 지난해 2월 노선버스 업종을 근로시간 제한 특례업종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그런데도 1년이 넘도록 소극적으로 대처하다가 버스 노조가 총파업을 결의하자 부랴부랴 내놓은 대책이 국민의 세금과 시민의 요금으로 충당하겠다는 것이라니... 정부가 주52시간 정착을 위해, 주52시간 근무제의 부작용이나 파장에 대해 진정으로 고민했는지 묻고 싶다. /산부잡장 yjh@metroseoul.co.kr

**삼성물산, 베트남에 '7번째 삼성마을' 건립**

**베트남 푸쿠옹, 나마오 지역 주거환경 개선, 위생교육 제공 3000명 마을주민 혜택 기대**

삼성물산이 베트남에 일곱번째 '삼성마을'을 짓는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지난 14일 베트남 타이응우엔성 푸쿠옹 마을에서 '삼성마을(Samsung Village)' 7호 사업 착공식을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삼성마을은 삼성물산과 한국해비타트가 함께 진행하는 글로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다. 지난 2015년 2월 인도네시아 파시르할랑 지역에 1호 마을 건설을 시작으로 3개 국가에서 일곱번째다. 삼성마을 사업 비용은 모두 삼성물산 임직원의 기부금으로 조성됐다.



삼성마을 7호 사업 착공식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삼성물산

삼성물산은 이번 7호 사업으로 베트남 타이응우엔성 푸쿠옹 마을과 나마오 마을에 18세대 집짓기, 35세대 집고치기와 화장실 37개 설치를 포함한 위생시설 신축, 위생교육과 재난대응교육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삼성마을 7호 사업은 오는 2020년 9

월 준공 예정이며, 약 3000명의 마을 주민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이번 착공식에 참석한 삼성물산 양순호 수석은 "이번 사업을 통해 두 마을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게 돼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과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

- ◆**산업통상자원부** ◇과장급 정보 △입지총괄과장 조용환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정책기획팀장 최영수
- ◆**국세청** ◇서기관 승진 △국세통계담당관실 권석현 △전산운영담당관실 이승신 △감찰담당관실 이철경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백종찬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최재현 △상호합의담당관실 권동철 △법령해석과 오대규 △법령해석과 이순용 △부가가치세과 김필식 △법인세과 조풍연 △상속증여세과 김광민 △조사기획과 송원영 △조사1과 이동희 △조사1과 최영철 △하자금상환과 이경순 △대변인실 신규성 △운영지원과 김상범
- ◆**한양증권** ◇임원 신규 선임 △SI운용본부장 윤재호

**부음**

- ▲**박용학** 씨 별세, 박호창(BBS불교방송

- 전법후원국 국장) 씨 부친상 = 15일,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장례식장 206호, 발인 17일. 02-927-4404
- ▲**이연재**씨 별세, 소재익·소형석(중앙보훈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소은석(라임자산운용 기업투자본부장)씨 모친상 = 15일 0시50분께,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4호실(16일부터 15호실), 발인 17일 오전 8시. 02-3410-6914(16일부터 02-3410-6915)
- ▲**박순자**씨 별세, 임승빈(인천대 기획예산과장)씨 모친상 = 15일, 부천 휴먼유병원 장례식장 특2호실, 발인 17일 오전 9시. 010-6326-1942
- ▲**최석태**(전 부산 중구 의회 의원)씨 별세, 최우용(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최원용(신우공업 대표)·최은경·최은주씨 부친상, 심유진·이상희씨 시부상, 이재구(신아상사대표)·조성규(인터내셔널페인트 리서치 총부장)씨 장인상 = 14일 오후 11시8분께, 동아대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17일 오전 6시. 051-256-7011
- ▲**정의현**(전 ㈜현성건강 대표이사)씨 별세, 유기순씨 남편상, 정용기(성균관대 의대 교수·삼성창원병원 이비인후과 과장)·정용준(브레드프로덕션 대표)·정누리씨 부친상, 장현정(성균관대 의대 교수·삼성창원병원 재활의학과 의사)씨 시부상 = 15일 오전 10시40분께,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7호실(16일부터 20호실), 발인 17일 오전 9시30분. 02-3410-6907(16일부터 02-3410-6920)
- ▲**박동월**씨 별세, 박상호·박상영·박상철(경기대 특임 부총장)·박은하씨 부친상 = 15일 오전 2시께, 전남 순천의료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17일 오전 9시30분. 061-759-9181
- ▲**배혜원**씨 별세, 한정호(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한수영·한수미씨 모친상, 한세현(SBS 기자)·한중현(엠티뱅크 대리)씨 조모상 = 14일 오전 10시께,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2호실(15일 오전 10시부터), 발인 17일 오전 6시. 02-2227-7580